

등급

성적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눈 것.

나는 상위 몇 퍼센트?

취재 송지연 기자 nano37@naeil.com

내신의 과목별 석차 등급은 현 고2까지 9등급, 고1부터 5등급으로 누적 비율에 따라 구분합니다. 9등급제를 예로 들면, 100명 중 과목별 성적이 상위 4%에 속하는 4명에게 1등급, 4% 초과~11% 이하에 해당하는 7명에게 2등급을 부여합니다. 3등급은 11% 초과~23% 이하에 해당합니다. 수능 등급은 영역별 표준점수를 9등급으로 구분한 것입니다. 등급을 나누는 방식은 내신 9등급제와 동일합니다. 절대평가인 영어, 한국사, 제2외국어/한문 영역은 원점수를 기준으로 9개의 등급을 부여합니다. 영어는 100~90점이 1등급, 89~80점이 2등급에 해당합니다. 50점 만점인 한국사는 50~40점이 1등급, 39~35점이 2등급이고 제2외국어/한문 영역은 50~45점, 44~40점에 각각 1·2등급을 부여합니다.

과목 수강생이 38명이면 내신 1등급은 총 몇 명인가요?

현 고2라면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수강자 수에 0.04를 곱한 후 반올림하면 됩니다. 수강생이 38명이면 1등급은 총 2명입니다. 5등급제가 적용된 현 고1이라면 총 4명이 1등급을 받습니다.

정시에서 수능 등급은 어떻게 쓰이나요?

정시에서 수능 등급을 반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각 등급에 점수를 부여한 뒤,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 총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2026학년 홍익대는 영어 1등급에 100점을 부여하고, 영어 영역을 15% 반영합니다. 영어가 1등급인 사람은 15점을 받는 셈입니다. 두 번째는 등급에 따라 총점에 가점이나 감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 대표적으로 2026학년 고려대는 영어 2등급에 3점, 3등급에 6점 감점을 부여합니다. 일부 학교는 정시에서 표준점수나 백분위 대신 각 영역의 등급을 활용하기도 합니다. @